

## “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이 GDP의 7.3% 차지”

### - 교통혼잡과 대기환경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전환 시급 -

- 국토해양부는 '08년 5월 23일 건설회관에서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, 교통관련 연구기관·업체·학계의 전문가, 그리고 국가교통수요 점검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'07년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. 주요 결과를 보면,
- 첫째, 여객 기종점 통행량 및 통행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첨단조사장비(PDA)를 시범 적용하였다. 조사 결과, 신뢰성이 약 10%가 향상되었고 조사비용도 약 37%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.
- 기존 가구통행조사방식으로 누락된 단거리 통행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 신뢰도를 10% 정도 향상가능한 것으로 추정
- 전국 단위(모집단의 3%인 48만 가구 기준)의 첨단교통조사를 2회 시행할 경우, 기존 방식에 비해 37%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 추정

<표> 첨단교통조사의 예산 절감 효과

구 분	첨단교통조사 (A)	기존 교통조사 (B)	예산 절감 효과 <sup>1)</sup> (B-A)/B
금액	87 억 <sup>2)</sup>	138 억 <sup>3)</sup>	37% (-51억)

주: 1) 전국 단위 교통조사(가구통행실태조사 및 속도조사 시행시)를 2회 시행할 경우의 예산 절감 효과임

2) 87억 = 최초(77억) + 2회째(10억)

3) 138억 = 69억/회 × 2회

※ 첨단교통조사의 초기연도는 첨단조사 단말기 제작으로 인해 높은 초기비용이 발생하나, 첨단교통조사를 2회 이상 시행할 경우 첨단조사장비의 반복 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남

□ 둘째, 화물 물동량 산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물류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식료품, 전기전자, 철강, 택배화물 등 6개 품목에 대한 유통경로조사와 기업들의 물류애로를 분석하였다.

○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달물류의 어려움과 물류비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조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자가창고를 보유하고 있어 영업물류시설 확충과 제3자 물류 활성화가 필요하고, 택배화물의 경우 물류처리인력 확보 및 소형트럭에 대한 화물차 공급기준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셋째, 교통관련 비용을 추정한 결과, 2005년 정부 및 민간부문 교통 지출비용은 약 145조원으로 GDP의 18%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. 또한 교통혼잡비용, 교통환경비용 등을 합한 외부비용은 총 59.2조원으로 GDP의 7.3%에 해당되어,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.

<국가교통비용 요약>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	금액	GDP 대비 비중(%)	총비용 대비 비중(%)	
내부비용	정부비용	243,364	3.0	12.0	
	민간비용	개인비용	434,912	5.4	21.3
		기업비용	769,570	9.5	37.7
	소계		<b>1,447,846</b>	17.9	71.0
외부비용	교통혼잡비용	166,212	2.1	8.1	
	교통사고비용	142,818	1.8	7.0	
	교통환경비용	282,934*	3.5	13.9	
	소계	591,964	7.3	29.0	
합계			25.2	100.0	

주: \* 교통비용의 최소금액은 교통환경비용의 온실가스 비용의 계산에서 2005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중간값(21.5유로)을 적용한 값을(270,402억) 최소액으로 활용함

